

# “광주형일자리 업종 다변화·전문자원 조직화 필요”

##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미래 전략 마련 토론회 개최 사회적 임금 해결·새로운 거버넌스 작동 등 강조

광주형일자리 성과 확산을 위해 업종 다변화, 전문자원 조직화, 사회적 임금 해결, 새로운 거버넌스 작동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형일자리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대전환 방향 설정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시,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광주노사민정협의회

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학계·경영계·노동계·시민단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동찬 대표이사의 개회사와 정무창 시의회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축사에 이어 오후까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오전 1부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형일자리 성과와 대전환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혁신운동 측면에서

광주형일자리 개념의 재정립과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임금 해결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작동을 역설했다.

그리고 광주형일자리 대전환을 위해 광주가 구축한 상생의 구성체가 미래 모델이 되도록 신뢰와 타협의 정신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는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이 ‘지역일자리 혁신모델 구축사례와 광주형일자리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일자리 정책 수단들을 결합해 지역 주도의 일자리 사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교육-복지 정책을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광주형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에서 일자리 전반으로 업종

다변화를 강조했다. 파편적인 일자리 사업을 공동화하고 지역인재 지원을 위해 상생일자리재단이 다양한 전문자원을 조직화해 모델화 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좌장을 맡고 강수훈 시의회 운영위원장, 김덕모 그린카진흥원장, 전인 영남대 교수, 이찬영 전남대 교수, 윤상용 조선대 교수, 고창운 빛그린산단 노조위원장, 유미현 상생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이 광주형일자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재단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후 2부 첫번째 주제발표는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 다양화’라는 주제로 협의회의 역할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광주노사민정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상생일자리재단의 인프라 확보, 연구·실태조사 결과의 사업화, 광주시·재단·관련단체의 거버넌스 강화 등을 제안했다.

두번째 주제발표는 김주일 한국기술산업대 교수가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과 한계’라는 주제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종류를 소개하고 협의회 운영 실태·한계를 지적했다.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약 중심의 협의회 위상 강화, 기타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재는지 시의회 새로

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정관 금속노련광주전남본부 의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 임동학 광주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장, 이찬규 전국노사민정협의회 회장, 김경중 상생일자리재단 팀장이 광주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찬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광주형일자리는 노사민정이 상생과 협업을 통해 지속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며 “토론회의 다양한 의견이 실제 정책이 반영돼 광주형일자리 모델이 확산하도록 재단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 도-저장성 ‘해양경제’ 한중포럼

전남도는 18일 “중국 저장성과 제24회 한중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해양자원 보전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제(해양생물다양성·해양자원의 이용과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신현근 전남도 국제협력관과 천장평 저장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부주임, 탕정량 저장성 해양생태감측센터 부주임 등 13명이 참석해 두 지역 해양생물의 종류와 현황, 해양자원 보전, 해양자원의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인 전남도와 저장성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 재해, 어족자원 남획, 바다 사막화 등에 대해 공감하고 해양오염 방지, 자원보존,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영재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지속적인 수산자원 이용을 위한 자원 조성, 어획량 제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어초 사업, 바다정원화 사업, 수산종자 방류사업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최석남 전남도 갯벌보전관리추진단장이 다양한 해양생물의 보고인 전남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갯벌 종합계획 수립 등 갯벌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경식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방장은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조성하면서 소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부세 양식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저장성 측에서는 저장성 해양 생물다양성 현황 및 보호, 해양생태제품정책의 경제효과, 해양생물다양성평가에 차세대 DNA염기서열분석법 적용에 대해 발표했다.

/김재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나주시 동강면 영산강 느리지 전망대를 방문, 관계자로부터 동강 느리지 관광명소화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전남도제공>

## 영산강 느리지 명품관광지로 가꾼다

### 김지사, 나주·무안 관광자원 개발 적극 지원 약속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7일 나주 동강면과 무안 몽탄면에 있는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리지 전망대를 방문, 나주시와 무안군의 관광자원 개발 현황을 살피고 명품 관광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현장에는 운병태 나주시장과 김지사 무안군수, 나주 출신 이재태·최명수 전남도의원, 무안 출신 나광국·정길수 전남도의원,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임성환 나주시의원, 이호성 무안군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했다.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리지는 유수의

흐름에 따라 형성됐다. 한반도 형상과 매우 유사해 매년 사진을 찍기 위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는 2019년 ‘영산강 느리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후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 2023년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섬터와 산책로, 주차장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2021년 ‘영산강 관광경관개선 사업’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 중이다. 2023년

상반기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36억원을 들여 조망센터, 탐방로, 꽃단지, 한반도 지형 상세복원 등 사업을 할 계획이다.

2개 사업이 준공되는 2025년부터는 한반도 지형 느리지 관광지가 명실공히 손색이 없는 지역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나주시와 무안군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지형 느리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친환경적이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컨셉으로 개발계획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 광주시, 우리밀 육성사업 ‘눈에 띄네’

### 한국우리밀농협 ‘우수국산밀 생산단지’ 최우수상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밀 육성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9년 8월 ‘광주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우리밀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광주시의 국산밀 생산량은 전남도, 전북도에 이어 전국 3위, 광역시 중 1위다.

올해에는 약 15억원을 투입해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지원(10억원), 생산비 지원(2억원), 경영체육성(시설·장비) 지원(1억원), 소비촉진·현장체험 지원(1억원), 교육컨설팅 지원(1억원) 등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광산구에 있는 한국우리밀농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2022년 우수국산밀 생산단지’ 최우수

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개 시·도 22개 생산단지 중 지자체 자체 평가와 전문가단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9개소를 2022년 우수국산밀 생산단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한국우리밀농협’은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급 300만원, 2023년 농식품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남택송 생명농업과장은 “10여년 간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생산비·소비 촉진,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광역시 최초 국산밀 생산량 전국 3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우수국산밀 생산단지 최우수상 수상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내년에는 수매용 톨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국산밀 생산, 소비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 전남·전북 산림연구기관 ‘공동 연구’ 맞손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8일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중앙부처 연구과제 발굴 및 산림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협업연구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기적인 모임과 학술대회를 통해 중앙부처 산림과학기술 과제 발굴과 협업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버섯 재배·사업화, 산림자원의 기능성 원료 추출과 실용화 방법, 중앙부처 연구과제 발굴 등의 노후우를,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무궁화 육성·관리기술, 산림자원 공

동조사 등을 통한 생태조사와 분류 방법 등 수목 분류 분야 노후우를 공유한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전남 산림연구 100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타 시·도 산림분야 연구기관과 업무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산림과학 융복합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영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임업시험연구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고, 중앙부처 연구과제 사업 공모로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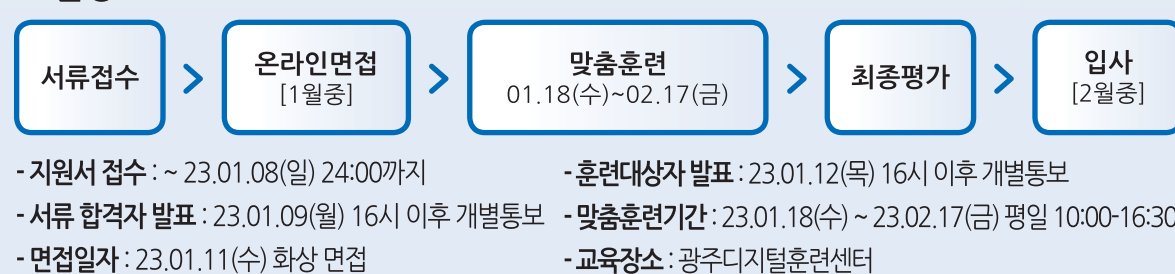
# 전액 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쿠팡 장애인 맞춤형훈련생 모집**

## ■ 훈련내용 : 쿠팡 주식회사 재택사무직

\* 맞춤형훈련은 채용을 전제로 한 훈련 과정이며, 업체에서 요구하는 근무능력 만족 시 훈련 수료 후 입사 가능

직무	훈련내용	근무조건	모집인원
쿠팡이츠 사무보조	- 한글 및 Excel 활용 방법 - 사진편집 - 커뮤니케이션스킬	- 근무시간 : 주5일, 일 4시간 (A조: 13:00-17:00 / B조: 13:30-18:00) 근무 시간은 선택이 아닌 면접 후 결정) - 급여 : 월 100만원(세전) - 근무조건: 재택근무, 4대보험 등	3명
쿠팡 판매자 보상처리		- 근무시간 : 주5일, 일 8시간(09:00-18:00) - 급여 : 월 206만원(세전) - 근무조건: 재택근무, 4대보험 등	5명

## ■ 일정



## ■ 지원자격(모두 만족)


- 만 19세 이상 구직 등록장애인 또는 상이 등급에 해당되는 자
- 집에서 재택근무환경(컴퓨터 활용, 인터넷 설치 등)을 갖출 수 있는 자
- 성별/학력/경력 무관

**입학상담**

**Tel. 062-448-1188**

광주디지털훈련센터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19층  
(양동 KDB생명빌딩, 구.금호생명빌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디지털훈련센터

